

2014-03

현안연구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기준

2014년 8월

Bandi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현안연구 2014-03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기준

2014년 8월

# 목 차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5
1. 지방 사립대들의 위기상황 .....	5
2. 사립대 평가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 .....	10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13
4.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학 현황 .....	14
II. 사립대 평가 정책 현황 .....	21
1. 지난 정부별 대학 정책 .....	21
2.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 .....	26
3.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	29
III. 제주 사립대 인센티브 지원 기준 .....	33
1. 사립대 지원 방향 .....	33
2. 평가 1)안(취업률 중심 평가) .....	37
3. 평가 2)안(다양한 평가 지표 활용) .....	41
IV. 제 언 .....	53

## 〈 표 목 차 〉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7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전망 .....	9
〈표 3〉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 현황 .....	14
〈표 4〉 2013년 제주국제대학교 신입생 현황 .....	15
〈표 5〉 2013년 제주국제대학교 교원 현황 .....	15
〈표 6〉 2013년 제주국제대학교 교원 강의 담당비율 .....	16
〈표 7〉 2013년 제주국제대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	16
〈표 8〉 2013년 제주한라대학교 신입생 현황 .....	17
〈표 9〉 2013년 제주한라대학교 교원 현황 .....	17
〈표 10〉 2013년 제주한라대학교 교원 강의 담당비율 .....	17
〈표 11〉 2013년 제주한라대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	18
〈표 12〉 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신입생 현황 .....	19
〈표 13〉 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교원 현황 .....	19
〈표 14〉 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교원 강의 담당비율 .....	19
〈표 15〉 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	19
〈표 16〉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지표 .....	26
〈표 17〉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대상 .....	27
〈표 18〉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방법 .....	28
〈표 19〉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	30
〈표 20〉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	31
〈표 21〉 제주 사립대학 정성지표 .....	38
〈표 22〉 1안 제주 사립대학 평가 추진 절차 .....	40
〈표 23〉 정량평가에 따른 대학별 차등지원 .....	41
〈표 24〉 정성평가에 따른 대학별 차등지원 .....	41
〈표 25〉 2안 제주 사립대학 평가지표 .....	42

〈표 26〉 2안 제주 사립대학 평가 추진 절차 .....	47
〈표 27〉 인센티브 상황별 지급 예시 .....	51

## 〈 그림목차 〉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구성비 추이 .....	7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구성비 전망 .....	8
〈그림 3〉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	11
〈그림 4〉 1안 제주 대학 평가모형 .....	37
〈그림 5〉 2안 제주 대학 평가모형 .....	42
〈그림 6〉 평가지표 양식 .....	49
〈그림 7〉 인센티브 배부 기준 .....	50
〈그림 8〉 각 대학별 인센티브 예산 분포 .....	51



##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지방 사립대들의 위기상황

#### 1) 지방 사립대 및 전문대의 위기 상황

- 현재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교육은 신분상승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은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기업들의 수요에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떤 방향의 교육을 추구해야 할지를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중요한 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은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그 외의 다른 대학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타 시도와는 차별된 사립대학 지원 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제주지역에 특성화 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 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는 달리 기술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개설되었고, 2015년 현재 전국에 138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그 중 8개교는 국/공립 전문대학이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교보다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며, 전체 전문대학의 학생충원률은 일반대학교에 비해 약 4% 낮은 92%대에 머물고 있다. 심각한 것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사립전문대학인데, 수도권 소재 사립전문대학보다 약 13% 정도나 낮은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전문대학들은 현재에

도 학생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 전문대학들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강점으로 홍보하고 있고 취업률을 무기로 학생선발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대학들의 강점들에는 한계가 있다. 취업률은 높지만 향후 취업 후 임금의 격차와 조직 내 인사명령과 이동에 있어서 일반 대학교에 비해 페널티가 있는 것이 전문대학의 한계점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대학교육이 심각한 존립위기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반대학들조차 학생충원률이 떨어지면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고등교육의 최하층에 위치 지워진 사립전문대학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국공립전문대학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졸업 후 비용 대비 기대 수익이 작은 사립전문대학들 중 상당수가 폐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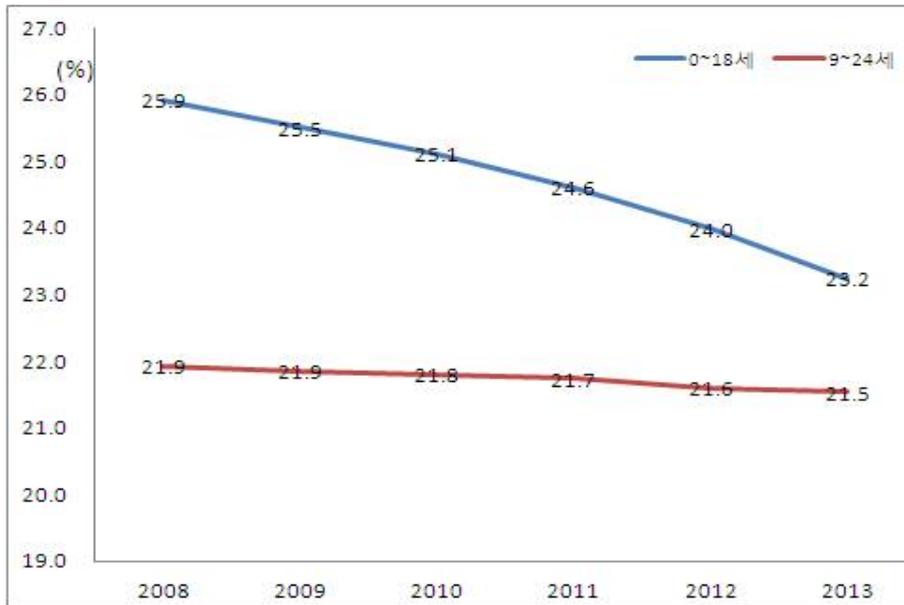
- 이러한 위기는 지방 사립전문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4년제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의 극심한 서열화로 인한 사립대학 내부의 양극화가 큰 상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립대학은 서열에 따라 등록금 격차도 많이 나고, 학생충원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비수도권의 사립대학은 학생 수 감소와 낮은 수업료 수입으로 재정위기가 당장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 2) 제주특별자치도 학령인구에 따른 사립대 위기상황

- 뒤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겠지만 현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사립대 구조조정이란 명목 아래 학교별 정원감축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일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립대 관련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당장 정부의 사립대 구조조정 여파가 들이닥치지 않겠지만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대학의 내실화를 기할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지금부터 하나씩 잘 정리를 해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들의 마련이 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구성비 추이



출처 : 호남지방통계청 “201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통계”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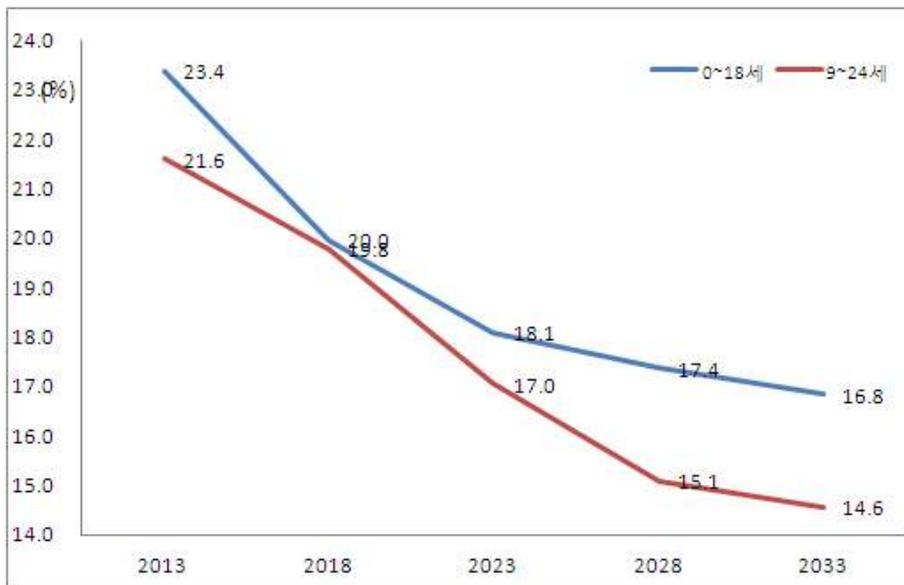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제주총인구	0~18세	9~24세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2008	543	141	25.9	119	21.9
2009	545	139	25.5	119	21.9
2010	547	137	25.1	119	21.8
2011	552	136	24.6	120	21.7
2012	559	134	24.0	121	21.6
2013	560	130	23.2	121	21.5
증감률*	0.2	-2.3	-	0.0	-

출처 : 호남지방통계청 “201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통계”

- 현재 학령인구 감소는 제주특별자치도도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를 보면 청소년(9~2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위 자료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인구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미래의 인적자원이 되는 0~18세, 9~24세의 인구수와 인구구성비는 줄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 인구 전망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33년 총인구는 570,000명으로 2013년 560,000명에 비해 1.8%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9~24세) 인구는 2033년 83,000명으로 2013년 121,000명에 비해 3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9~24세 인구구성비는 2013년 21.6%에서 2023년 17.0%, 2033년에는 14.6%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구성비 전망



출처 : 호남지방통계청 “201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통계”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전망

(단위 : 천명, %)

		총인구	0~18세	9~24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제주 특별자치도	2013	560	131	23.4	121	21.6
	2018	566	113	20.0	112	19.8
	2023	569	103	18.1	97	17.0
	2028	570	99	17.4	86	15.1
	2033	570	96	16.8	83	14.6
전 국	2013	50,520	10,019	19.8	10,039	19.9
	2028	51,141	8,963	17.5	8,888	17.4
	2023	51,791	8,529	16.5	7,764	15.0
	2028	52,131	8,433	16.2	7,190	13.8
	2033	52,060	8,165	15.7	7,111	13.7

출처 : 호남지방통계청 “201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통계”

- 자료들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2033년이 되면 9~24세의 인구수는 83,000명이 될 예정이다.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고등학생 수는 약 25,000명 정도이다. 이 수치는 자료들을 통해 볼 때 계속 감소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고3학생 인구수와 제주도 외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할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들의 위기상황도 멀지 않은 시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들은 지금부터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섬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지역특화 교육 정책으로 지역 친화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수립하면 앞서 말한 다른 지역의 대학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제주지역의 사립대들은 의외로 쉽게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 2. 사립대 평가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

- 사립대학의 평가와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로 많은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뒤에서도 거론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각 정부별 대학 관련 정책들의 긍정적인 측면 외의 부정적 측면의 후유증과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구조적 문제점 등 여러 부분에서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촉진제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사립대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의 제한을 두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를 세우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들이 학문연구라는 대학의 순기능만을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주장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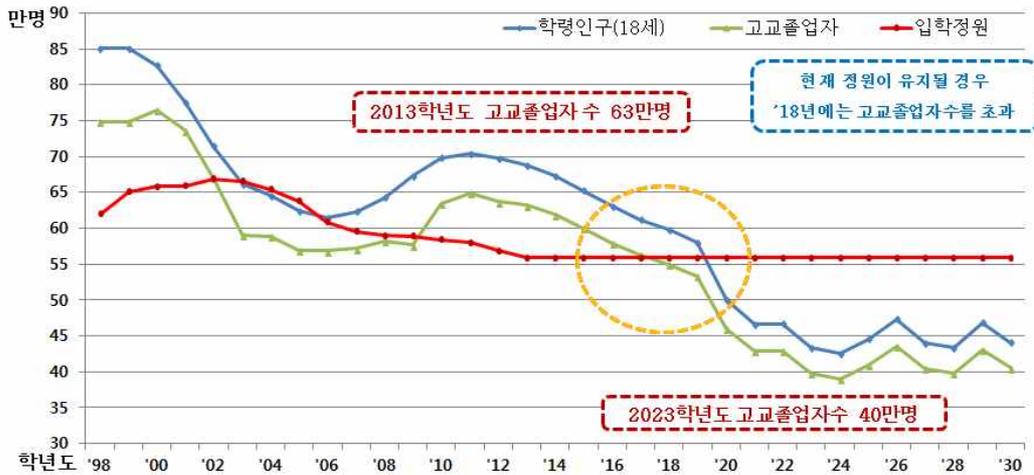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이 대두되게 된 요인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령인구 감소

- 학령인구 급감으로,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된다. 2013년의 대학입학정원은 56만 명이었고, 고교졸업자수는 63만 명이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고교졸업자 수는 55만 명이 되어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수를 초과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2023년에 들어서 40만 명으로 급감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교육부, 2014) 이러한 현실이 불러올 결과는 당연히 경쟁력이 약한 대학들의 도태이다. 하나의 대학교 당 입학정원은 평균 1,700명 정도가 된다. 2013년 대비 2018년은 약 8만 명 정도의 고교졸업자 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50여개 대학의 입학정원과 같은 수치이다. 이러한 외부환경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비해 사립대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자칫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강점 분야 육성과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담보한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지방사립대학들은 스스로가 지역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림 3〉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출처 : 2014.1,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中

## 2) 우리나라 대학의 낮은 경쟁력

-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발전하였으나, 질적 경쟁력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의 부실한 교육과 학사 관리는 또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은 낮고 만족도 또한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85년에는 약 2만4천 명 정도에 불과했던 고등 교육 유학생 수가 2000년 12만 명, 2005년 19만 명, 2008년 21만 7천 명, 2011년 26만 2천 명 정도로 증가 추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유학생 수의 증가가 꼭 우리 대학의 낮은 경쟁력 때문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일조를 하고 있다 판단을 하며,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계통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유학 보내려는 욕구가 높다는 것은 매우 침통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낮은 경쟁력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기업들에게도 양질의 인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학전공지식의 일자리 도움 정도는 인문계열(40.6%), 자연계열(48.8%)에 불과하다.(한국고용정보원, 2011) 취업으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생겨나는 상황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 대학의 낮은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전반의 교육 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3)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 불일치

- 우리나라의 대학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기업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 불일치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한가지이다. 2012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8,926명으로 부족율은 2.6%를 기록하였다. 그 중 12대 주력산업의 부족인원은 28,390명으로 전체 부족인원의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산업(5,462명), 기계산업(4,931명), 전자산업(4,664명), 화학산업(4,416명) 등의 순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도별로 산업기술인력 부족을 보면 2009년 5.2%, 2010년 4.3%, 2011년 3.4%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족 인원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산업현장에 유능한 인재들이 신규로 투입되어서는 아니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인력수요가 줄어든 것을 이유로 보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능력이 되지 않으며 그러기에 각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 후 기업에서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청년실업은 증가하는데 각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은 막상 채용할만한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 4) 대학조직의 경직성

- 고등교육에 있어서 낮은 경쟁력과 낮은 사회적 수요 부합도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등교육시장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있다. 대학 개혁의 추진 유인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대학 내 존재하는 경직성으로 대학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과단위에 있어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학과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과단위의 구조조정 미흡으로 인해 학과별로 매우 상이한 교육 여건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이영, 2010) 우리나라 대학 조직들을 살펴보면 관료적이며 교육 서비스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학들이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많다는 의식의 교만함이 주된 요인이다.
- 이제는 대학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도태되어 소멸하게 될 것이다. 대학 스스로 교육서비스의 경쟁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1991년 12월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과 관광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 산업을 보호/육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법으로 총 363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184조는 제주자치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가 담겨 있으며 본 184조로 인해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사립대학에 대한 설립인가, 지도/감독, 시정명령 등 일체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등 이양 받은 권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여러 단체의 의견들을 경청하며 각종의 토론회 등을 진행 중이다.

#### 4.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학 현황

- 현재 제주자치도내에는 총 1개의 국립 대학교와 1개의 사립 4년제 대학교 그리고 2개의 사립 전문대학이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있고, 개신교 교육기관인 열방대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우리나라에서의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학교가 아니므로 대학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학은 총 3개교이며 그 중 한 곳은 4년제 대학이고 2곳은 전문대학이다.

〈표 3〉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 현황

학교명	형태	수업연한	개교일
제주국제대학교	사립 종합대	4년	2012년 3월
제주한라대학교	사립 전문대	2~4년	1969년 3월
제주관광대학교	사립 전문대	2~3년	1993년 3월

##### 1) 제주국제대학교

- 학교연혁: 1996년 12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동원산업대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96년 3월 8일 단과대학으로 개교하였다. 1997년 12월 일반

대학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1998년 3월 탐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11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대학인 탐라대학교와 전문대학인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함에 따라 2012년 3월 2일 제주국제대학교로 출범하였다.

- 학교구성: 2014년 현재 5개 대학원(경영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산업대학원)과 인문사회학부(경찰행정학과, 유아교육과, 아동심리언어치료학과, 일어일본학과, 중국어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사회복지학과, 자치행정학과), 경영학부(경영학과, 세무학과, 항공서비스경영학과), 공학부(건축디자인학과, 토목공학과, 전기에너지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컴퓨터응용공학과), 스포츠학부(골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마산업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예술학부(디자인학과)의 5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 부속기관: 중앙도서관, 전산정보원, 예비군대대, 국제교육원, 부속유치원, 부속어린이집, 학생생활관, 신문방송국, 체육부가 있고, 부설기관으로는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제주도관광연수원이 있다. 서강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광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 학교현황

〈표 4〉 2013년 제주국제대학교 신입생 현황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입학자수	정원내 지원자수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율
809명	424명	1,152명	52.4%	1.4

〈표 5〉 2013년 제주국제대학교 교원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174.4%	12.6명	57.5%

〈표 6〉 2013년 제주국제대학교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57.5%	34.6%	5.0%	1.7%	1.1%

〈표 7〉 2013년 제주국제대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공시정보 없음(2012개교)	공시정보 없음(2012개교)	공시정보 없음(2012개교)

- 기타사항: 4년제인 탐라대학교와 2년제인 제주산업정보대학이 통합하여 2012년에 개교한 제주국제대학교는 이사회의 파행으로 2년 넘게 총장이 공석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정상적인 학사운명을 위해 8월 중 총장 선임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총장후보를 공모 중에 있다.

## 2) 제주한라대학교

- 학교연혁: 1969년 3월 수업연한 3년의 제주간호학교로 설립된 전문대학이다. 1972년 제주간호전문학교로, 1979년 제주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83년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으로, 1991년 한라전문대학으로, 1998년 제주한라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82년 한라학원으로 설립자가 변경되었다. 2011년 12월 제주한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85년 노형동으로 학교를 이전하였으며 10,275평의 교지에 6개의 건물동, 68개의 강의실이 있다.
- 학교구성: 2014년 현재 간호학부(간호학과), 보건학부(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 방사선과, 보건행정과), 국제관광호텔학부(관광경영과,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관광레저스포츠과,

호텔외식경영과, 호텔조리과, 체육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복지행정과), 정보기술/건축학부(컴퓨터정보과, 디지털콘텐츠과, 정보통신과, 건축디자인과, 방송영상과, IT융합과), 마사학부(마추자원학과, 마사학과), 예술학부(음악과, 시각디자인과, 뷰티아트과)의 7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 부속기관: 도서관, 신문사, 방송국이 있고, 부설연구소로 대학발전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관광진흥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제주향토음식연구소가 있다. 신세대, 뜬소리 등 19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매년 5월에 한라축제가 열린다. 1970년에 설립된 도서관에는 열람석 528석, 장서 3만 2,126권이 갖추어져 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국립외국어대학, 러시아의 모스크바국립대학, 미국의 노스웨스트 미주리 주립대학, 일본의 벳부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 학교현황

〈표 8〉 2013년 제주한라대학교 신입생 현황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입학자수	정원내 지원자수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율
1,735명	1,735명	4,423명	100.0%	2.5

〈표 9〉 2013년 제주한라대학교 교원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49.6%	42.9명	41.3%

〈표 10〉 2013년 제주한라대학교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41.3%	36.0%	22.6%	0.1%	0.1%

〈표 11〉 2013년 제주한라대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1,390명	972명	69.9%

-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종류에 없던 2+4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2년제와 학사학위과정-4년제)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한라대학교가 지난 2013년 1월 18일 제주도로부터 2+4대학으로 전환 인가를 받아 마사학부, 마축자원학과 등 2개 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신설, 2013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는 제주지역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의 아주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 3) 제주관광대학교

- 학교연혁: 1992년 12월 학교법인 제주교육학원이 제주관광전문대학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이다. 1998년 제주관광대학으로, 2012년 제주관광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 학교구성: 2014년 현재 관광특성화분야(호텔경영과, 카지노경영과, 관광경영과, 항공/컨벤션경영계열,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계열, 관광외식조리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계열), 사회실무분야(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예능분야(인테리어건축과), 보건분야(치위생과, 간호과, 치기공과, 안경광학과, 관광뷰티디자인과), 공업분야(메카트로닉스과, 관광멀티미디어게임과, 디자인경영과, 함정기관/전자기술부사관계열)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속기관: 정보센터, 도서관, 생활관, 방송국, 학보사,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창업보육센터, 디자인혁신센터, 부속어린이집, 부속유치원 등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일본 오

사카 세케이여자단기대학, 일본 소비단기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 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성적우수장학금 외 9종의 교내장학금과 한국장학 회장학금 외 7종의 교외장학금이 있다. 1997년 관광숙박시설 종사원 교육 기관으로, 1998년 국외여행인솔자 양성 교육기관 및 자구노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00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관광컨벤션 분야) 대학, 2001년 주문식교육 우수대학, 산학협동 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

○ 학교현황

〈표 12〉 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신입생 현황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입학자수	정원내 지원자수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율
1,194명	1,137명	2,636명	95.2%	2.2

〈표 13〉 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교원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66.1%	32.9명	46.6%

〈표 14〉 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46.6%	30.2%	18.1%	2.4%	0.0%

〈표 15〉 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729명	521명	71.5%

- 기타사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I 유형 단일산업분야, II 유형 복합 산업분야, III 유형 프로그램 특성화분야, IV 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분야 네가지 분야로 나누어 우수 전문대를 선정하였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주관광대학교가 II 유형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5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제주관광대는 취업률 80%이상을 목표로 제주지역에 특화된 우수 관광인재를 육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 II. 사립대 평가 정책 현황

### 1. 지난 정부별 대학 정책

#### 1) 7.30 개혁 조치(1980년)

- 1980년대는 인구의 급진적인 팽창과 국민소득의 향상,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등으로 대학지원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재수생 4만 명을 포함, 대학진학 희망자는 50만 명(1980년)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당시 대학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20만 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7.30 교육개혁조치가 실시되었고 대학관련 주된 정책으로는 졸업정원제 실시 및 대학입학정원의 확대와 대학의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전환하여 신입생은 정원보다 일정수를 더 입학시키되(1981학년도는 졸업정원의 130%, 1982학년도에는 150%), 졸업은 정원수만큼만 시키며, 공부하는 대학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기 위해 전일수업제 및 영세학과의 증원, 기존대학의 학과 및 단과대학의 증설, 단과대학의 종합대학화, 신규대학의 설립권장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하여 1981년에만 10만 5천 명 증원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른 교수요원 확보, 대단위 수업방법을 도입, 서울과 지방 사이의 교수교류제 확대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교육대학의 수업연장 및 방송통신대학 운영 강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1981년부터 선별적으로 일부 교대부터 실시, 1984년부터는 모든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대학에 학사과정을 신설하여 1982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2년 과정의 학과 및 정원을 확대하였다. (국가기록원)
- 7.30 교육개혁조치는 누적되어 온 재수생 문제와 대학문호의 개방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의 확충과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교수 확보와 시설 확충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대학 입학 정원의 증가로 인해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졸업 정원제의 비교육적인 측면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였다.

## 2) 5.31 교육 개혁안(1995년)

- 김영삼 정부(1993~1998)는 1994년 1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개혁안에는 대학모형의 다양화, 특성화, 단설전문대학원 설치 및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대학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학술연구의 일류화, 대학교육의 전문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 학부제 등이 도입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을 위한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확보 등의 4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지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1996년 종래의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된 것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당시 규제완화를 희망하는 국민적 요구의 분출과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부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도입되었다.(이무근 외 2003)
-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과정의 간소화가 실현되어 이후 많은 수의 대학들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7.30 교육개혁 조치부터 이어져 온 대학의 양적증가로 대학의 과잉공급을 가속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대학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의 양적증가만 불러 일으켜 오늘날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린 개혁안은 취지와는 다르게 오늘날 비판 받는 부분이 매우 큰 정책이 되었다.

### 3)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년)

- 김영삼 정부(1993~1998)는 1994년 1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민의 정부(1998~2002)에서는 교육부가 1999년 3월 11일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안에서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지역 우수대학 육성, 학술연구 기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학술연구 기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총장 교수임용제도의 개선, 학생복지의 확대 및 학생활동 지원 등을 제시하였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정착 등을 강조하였다.(임연기 외, 1999)
-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은 두뇌한국 21사업이다. 두뇌한국 21(BK21-Brain Korea 21) 사업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독창적 지식 창출 능력을 갖춘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산학협동 및 학사과정 내실화로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양성할 지역우수 대학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교육부, 1999) 연간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며 대학구조 및 입시제도 개혁이 수반됨으로써 사교육비 증대 등 그 동안 파행을 면치 못했던 초/중등 교육까지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2차적 목표였다. 교육부에서는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여 세계의 우수대학과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 참여를 통한 수준 높은 교육과 함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 4) 국립대학 발전계획 (2000년)

-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체제에서 출범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 정부개혁실이 주도한 공공부문 개혁의 하나로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

획(1998.12.)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립대학 직원 감축, 일부 대학의 행정 조직 및 기능 조정 등에 그쳤다. 이에 교육부는 미미한 성과에 그친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2000년 12월 국립대학 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수정된 계획에서는 첫째 국립대학의 역할분담을 위한 중점육성 지원체제 구축, 둘째 대학 간 통폐합 및 학과 교환,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 구성 등을 통한 국립대학 간 연계체제 구축, 책임기관화 추진, 대학평의회 설치 등을 통한 대학의사결정 구조의 개편, 셋째 국립대학회체제 도입 등이 담겨져 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역할분담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국립대학을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 보호 학문분야 육성, 지역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 지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다. 대학 통폐합 시 지향하는 대학 모델을 제시하고, 달성 가능성, 가시적 구조조정 계획, 추진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통합 및 개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 통합대학 대상간의 지리적 여건, 비용절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 통합 및 개편 대학의 설치 학과간 연계성 및 개편의 타당성, 교육과정 통합계획과 설치, 개편 학과의 향후 발전 전망 및 사회적 요구, 학생 및 교원의 처리 계획, 지역주민의 여론,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임연기, 2005)

## 5) 2003년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 참여정부(2003~2007)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소득 2만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2003년 11월 21일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으로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차원에서 규제철폐로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경쟁을 통한 교육, 연구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지방대학의 육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인력양성, 대학지원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차원에서 대학 유형 및 특성에 기초한 정책 추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의 하나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과 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 법 제정 추진이 이루어졌다(임연기, 2005)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즉, 누리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참여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정부가 BK21(두뇌한국)사업의 후속으로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조 4,200억원을 투자, 인적자원을 개발하였다. 사업 유형은 지역 전략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과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4년 6월 16일 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권역별 112개 사업단을 선정, 발표했다. 지원 대상으로 뽑힌 대학은 4년제 79곳, 전문대 33곳으로 규모별로 보면 대형(연간 30억~50억원 지원)사업단 25개, 중형(10억~30억원 지원)사업단 25개, 소형(10억원 이하 지원)사업단 61개가 뽑혔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되고 연착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5년간 같은 액수를 지원받았다.(김외숙 외, 2006)

## 6) 2004년 대학구조 개혁방안

- 교육부는 2004년 12월에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대학 특성화 기본 방향 제시, 공주대-천안공대 통합 승인 등 국립대학들 간 통합 추진과 학사, 학생선발, 학생정원, 교원인사, 사학 및 법인 등 6대 분야에 대하여 총 63개의 자율화과제의 선정 및 12개 과제의 자율화 완료 등을 추진하였다(김재현, 2005).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고등교육정책과 동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BK21사업 마무리, Post-BK21 및 기초학문 육성 계획 추진 등으로 세계수준의 대학 연구력 확보, NURI사업 추진(5년간,

1조4천억 투자, 111개 사업단 선정 등),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육성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촉진정책,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특성화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 2.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

- 정부는 2013년 8월에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각 대학을 평가하여 하위 15%의 부실한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발표된 계획안이다. 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는 무시되고 지나치게 정량적인 평가만을 지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 1)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4년제 대학은 총 8개 항목의 평가지표가 있고, 전문대학은 총 9개의 평가지표가 있다. 평가지표에서 가장 반영률이 큰 항목은 전체의 100% 중 재학생 충원율이 30%를 차지하며 그 뒤로는 취업률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본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정부의 각 대학 평가의 방향성은 재학생들을 잘 취업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원활히 충원시키는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표 16〉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지표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①취업률	20%	15%	△5%p	20%	20%	-
②재학생충원율	30%	25%	△5%p	30%	25%	△5%p
③전임교원확보율	7.5%	10%	2.5%p	7.5%	7.5%	-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④교육비환원을	7.5%	12.5%	5%p	7.5%	10%	2.5%p
⑤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0%	12.5%	2.5%p	10%	12.5%	2.5%p
⑥장학금지급률	10%	10%	-	7.5%	7.5%	-
⑦등록금부담완화	10%	10%	-	7.5%	7.5%	-
⑧법인지표	5%	5%	-	5%	5%	-
⑨산학협력 역량지수	-	-	-	5%	5%	-

출처 : 2014.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

## 2) 평가대상

〈표 17〉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대상

항목	내 용
평가 대상	고등교육법상 모든 대학 및 전문대는 평가 대상이다.
제외 대상	교대, 교원대, 원격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사이버 대학, 각종 학교, 대학원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유예 대상	신설대학은 편제완성 후 2년간 평가를 유예함 개편대학은 편제완성 시까지 평가를 유예함 경영체제전환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유예
지정 유예 대상	평가대상에는 포함되어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더라도 통폐합 대학으로 구조조정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한다.
평가참여여부 선택가능대학	종교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포함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준다. 그러나 평가대상에서 빠질 경우 정부재정지원도 제한한다. 그리고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종교 관련 학과 재학생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건보DB 및 국세DB 등 행정DB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취업 형태(작가 등)가 많아 일반대학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포함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도 제한

출처 : 2014.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

### 3) 평가방법

〈표 18〉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방법

항목	내 용
기본 방식	대학별 공시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지표별 점수를 합산, 총점을 기준으로 하위 15%내외 선정함.
4년대/전문대	설립목적·교육여건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평가함.
수도권/지방	수도권/지방을 통합하여 전체 대학 중 하위 10% 내외 선정 후,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내외 추가 선정함.
본교/분교	본·분교를 분리하여 모든 지표값 산출이 가능한 경우, 신청대학에 한해 본·분교를 분리하여 평가함.
지역 상한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재학생 수가 해당 지역 전체 재학생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적용함. 그러나 최근 2년 이내 지역상한제로 지정유예된 대학이나,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지역상한제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배제함.
구조조정 가산점	정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정원감축 제재 처분,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정원감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며, 그리고 1%미만의 정원감축은 가산점 부여하지 않는다.
기타사항	아래의 경우는 지표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①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②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최소제한대출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 ③ 행/재정 제재를 받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 ④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

출처 : 2014.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

### 3.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 1) 추진배경

- 그동안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교육부, 2014)
-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014년 1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이를 놓고 많은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각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는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조개혁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모두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는 입장이며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교육부가 어떤 해안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 2) 추진계획

- 2017학년도까지 4만 명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한다.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표 19〉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출처 : 2014.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하며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금년(2014)부터 모든 정부재정 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2014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축한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여,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 및 조정할 계획이다.(교육부, 2014)

### 3)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 도입

-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또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게 된다.

〈표 20〉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등급	구조개혁 조치
최우수	정원 <b>자율 감축</b>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	정원 <b>일부 감축</b>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	정원 <b>평균 수준 감축</b>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미흡	정원 <b>평균 이상 감축</b>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b>II 유형</b>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매우미흡	정원 <b>대폭 감축</b>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b>I·II 유형</b>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b>자발적 퇴출</b> 유도  ※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연계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연계지원

출처 : 2014.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 평가영역 및 내용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향후 국내·외 대학 평가지표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공통지표 및 특성화지표로 구분하되,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하게 된다.(교육부, 2014)

#### 4)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사항

- 교육부는 지속적,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

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 등이다. 또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심사 시 국가 교육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금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하여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 동 법률을 제정하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2014)

## Ⅲ. 제주 사립대 인센티브 지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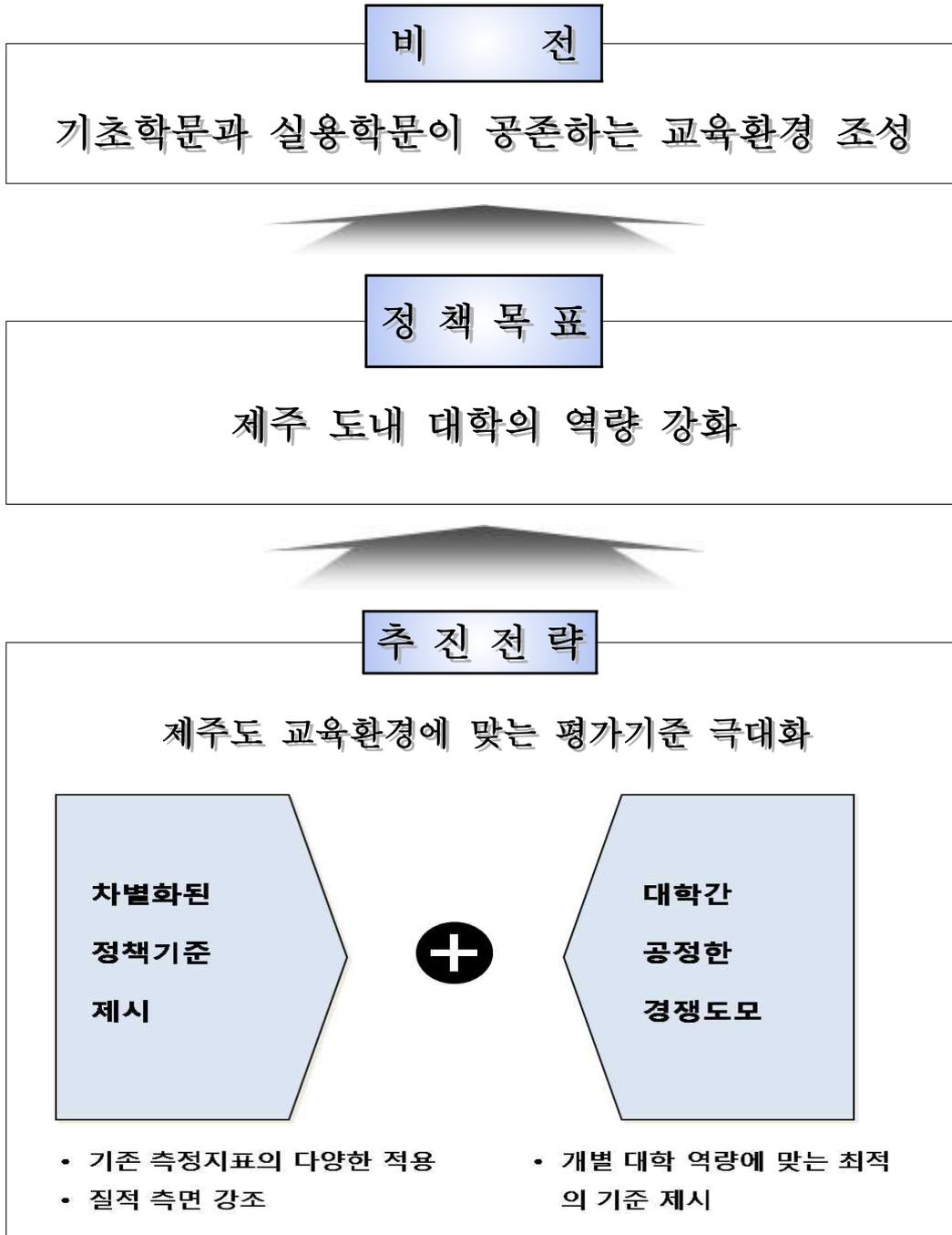
### 1. 사립대 지원 방향

#### 1) 이슈 종합

- 지금까지 많은 문헌과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정책과 현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의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한 대학의 양적 팽창부터 시작하여 학령인구의 감소까지가 현 우리 사회의 대학구조 조정이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제는 과거 각 정책들의 부작용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 앞서 거론하였지만 NURI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방대학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지원사업이었다. 2004년 말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었고 그 주체가 산업, 대학, 연구소, 그리고 지자체로 구성된다고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네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중 한축인 대학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산업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NURI사업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앞서 정리한 교육부의 사립대학평가안 자체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위한 대학들의 정량적 평가에 지나치지 않는 면이 많다.
- 재정지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각 대학들에게 동기부여의 장치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학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중,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단순한 재정지원의 방식보다는 산학협력과 지역친화적인 교육의 텃밭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URI사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대학들은 일단 대학 자체의 순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제주지역산업에 꼭 필요한 중견전문인력 육성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1개의 4년제 대학과 2개의 전문대가 있다. 4년제 대학은 학문탐구와 인재양성 등의 두 가지가 병행되며, 전문대는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연구 활동 등을 통해 학업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유능한 산업인재 양성에 더욱 특화가 되어있는 교육기관이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취업률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산업인력을 배출하고 제주자치도에 지역친화적인 인재를 다수 배출하여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당성이 매우 크리라 판단한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의 전문대학은 우수 인력 배출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꼭 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이와 같이 제주지역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1차적인 근거는 우수한 산업인력 배출을 통한 취업률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재정지원을 통한 사립대의 특성화 구조조정이다. 제주자치도내의 사립대들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잘 담고 있는 학교로 커 나가야 한다.
-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타 지역의 학생들도 유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이념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이다.

2) 비전 및 추진 전략



### 3) 추진방향(2가지 안 제시에 따른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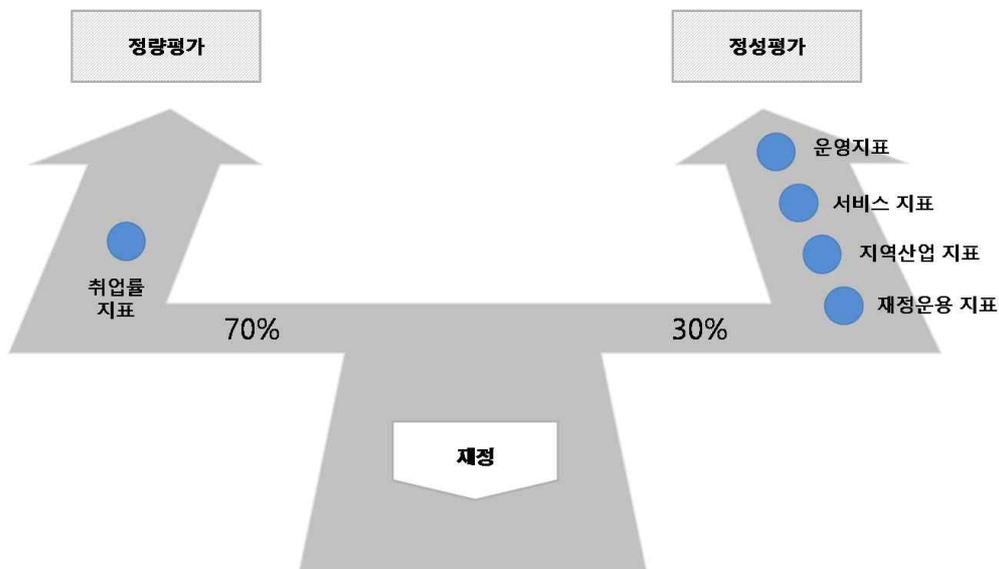
- 교육부의 대학평가 4대 지표 중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면서 효과적인 대학운영의 결과지표인 취업률을 인센티브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도내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또한 정량평가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대학의 취업 향상 노력을 정성평가로 측정하여 취업률의 한계를 보완한다.
- 기존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제주도내에 있는 대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제주도 학교의 내·외부 환경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로 제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 취업률, 충원율 등 몇 가지 중요한 지표는 타 사업 평가지표가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타 대학교와의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 몇 개의 타 사업 평가지표는 제주도내 학교와 맞지 않아 삭제하고 몇 개는 변형 및 단순화하여 사용한다.
  - 제주도는 특히 취업률을 중시하여 취업률 지표를 세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방적인 양적 평가조사에 그치지 않고 질적 조사를 하고자 한다.
- 현재 적용 대상이 되는 3개 대학을 획일적인 지표로 동일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역량에 맞게 평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비교 대상이 3개 학교로 적은 수준이고 각 학교마다 종합대, 전문대가 존재하며 학생수도 달라 절대 수치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 각 대학별 평가위원회와 자율적 협의를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달성률로 대학의 운영을 평가하고자 한다.

## 2. 평가 1)안 (취업률 중심 평가)

### 1) 평가 모형

- 제주 사립대 조직을 2Way 방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 부분은 취업률 단 하나의 결과 지표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는 4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대학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그림 4〉 1안 제주 대학 평가 모형



### 2) 평가 지표

- 정량지표 : 취업률 한 개의 결과 지표로 평가한다.
- 산출식

$$\text{건강보험DB 취업률(\%)} = \frac{\text{건강보험직장가입자} + \text{해외취업자} + \text{영농어업인}}{\text{졸업자} - (\text{입대자} + \text{진학자} + \text{외국인유학생} + \text{취업불가능자} + \text{제외인정자})} \times 100$$

- 대학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지표로서 현재는 건강보험DB 연계로 정확한 수치 산출이 가능함. 각 학교 취업률을 전국 사립(전문)대학 평균 취업률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 정성지표 : 4개 영역의 각 지표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표 21〉 제주 사립대학 정성지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취업지원 활동	비전과 전략, 취업지원 조직운영	40%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40%
지역산업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및 인력양성	10%
재정지원	재정지원액 운용	10%
합 계		100%

### 3) 정성 평가 지표 세부내용

- 취업지원 활동(40%)
  - (1) 비전과 전략
    - 가중치 : 10%
    - 평가항목 :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확보 운영계획을 평가
  - (2) 취업지원 조직운영
    - 가중치 : 30%
    - 평가항목 :
      - ① 취업조직 전담 여부 (취업지원센터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 ② 취업지원사업비 투입현황
      - ③ 전문인력 보유정도(취업전담교수, 연구원 등)
      - ④ 취업지원 시설현황

○ 취업지원 서비스(40%)

(1) 취업지원 프로그램

- 가중치 : 40%
- 평가항목 :
  - ① 취업지원, 진로 상담 현황
  - ②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실적
  - ③ 구인 구직활동 실적
  - ④ 취업지원관련 시스템 구축 여부
  - ⑤ 취·창업 강좌 운영 및 지원
  - ⑥ 산업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실적

○ 지역산업 연계(10%)

(1)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및 인력양성

- 가중치 : 10%
- 평가항목 : 제주지역 맞춤형 취업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턴쉽·현장 실습 등 전공연계 프로그램 실적

○ 재정지원(10%)

(1) 재정지원액 운용

- 가중치 : 10%
- 평가항목 : 예산집행의 적정성

#### 4) 평가 절차

- 전년도 평가자료 제출을 통해 취업률 정량평가와 위원회를 통한 정성평가 후 3월에 인센티브를 교부한다.

〈표 22〉 1안 제주 사립대학 평가 추진 절차

No	수행 절차	시기
1단계	대학별 각 평가자료 제출	1월
2단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및 정성평가	2월
3단계	사업비 교부	3월

### 5) 평가 위원회 조직

- 도 조례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 인원 : 총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6) 인센티브 지급방안

- 인센티브 지원 기준
  - 지원 기준 평가는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평가함
  - 평가 대학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1) 정량평가 방안
  - 평가방식 : 2단계 비교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 ① 1단계 : 평가대학의 취업률과 전국 사립(전문)대학 평균취업률과 비교하여 평균 이상일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 (평가대학 취업률  $\geq$  전국사립대학 평균취업률)
    - ② 2단계 :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대학의 직전 3년간 평균취업률 대비 평가년도 취업률 향상 폭을 비교하여 차등지급

〈표 23〉 정량평가에 따른 대학별 차등지원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본지원금	합계
3개 대학 향상	50%	30%	20%	-	100%
2개 대학 향상	65%	35%	-	-	100%
1개 대학 향상	100%	-	-	-	100%

※ 전국 평균 취업률 미만인 대학은 기본지원금은 없으며 취업률 향상 대학은 순위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학들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

(2) 정성평가 방안

· 평가방식 : 4개 영역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 정량평가로는 확인할 수 없는 대학의 취업 향상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순위별 지원 폭을 크게 함으로써 대학간의 경쟁 및 자구 노력을 유도

〈표 24〉 정성평가에 따른 대학별 차등지원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지원비율	60%	30%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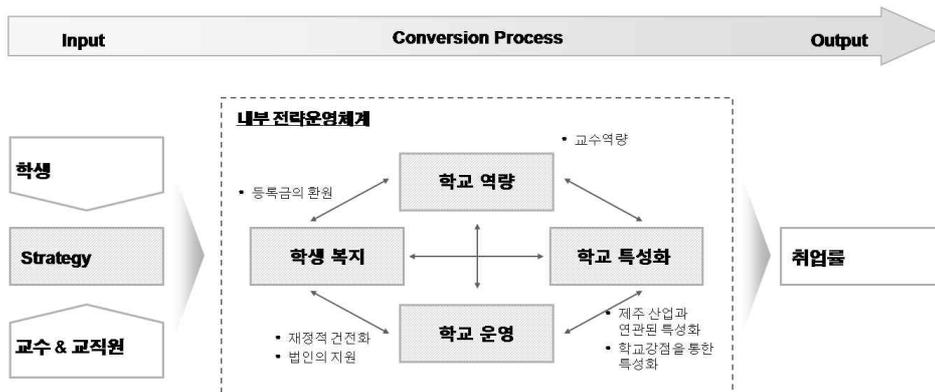
3. 평가 2)안 (다양한 평가 지표 활용)

1) 평가 모형

- 제주 사립대 조직을 Open System Theory를 변환 적용하여 평가 지표구성 항목을 Input, Conversion Process, Output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Input은 대학 조직내 사람을 투입하는 것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으로 구성된다.

- Conversion Process는 전반적인 학교 운영측면을 역량, 복지, 재정운영, 특성화 등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내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Output은 대학의 산출물 즉 성과부분으로 취업률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5〉 2안 제주 대학 평가 모형



## 2) 평가 지표

- 3개 영역에 총 14개 지표로 평가하며 각 지표마다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한다.

〈표 25〉 2안 제주 사립대학 평가지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Input	정원내 재학생 총원율	10%
	중도 탈락률	5%
	교원 확보율	10%
	직원 1인당 재학생 수	5%
	정원 조정률	5%
	소계	35%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Conversion Process	장학금 환원율	5%
	등록금 의존율	5%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실적	5%
	교비자금 중 법인전입금 비율	5%
	특성화 지수	10%
	소계	30%
Output	취업률	15%
	유지 취업률	5%
	전년대비 취업 증가율	5%
	취업자 평균 임금수준	10%
	소계	35%
총계		100%

### 3) 평가 지표 세부내용

#### ○ Input 지표

##### (1)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산출식 : 정원내 재학생 수 ÷ 편제정원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교의 교육의 질과 학생의 대학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평가사업의 기본지표로 여러 평가에 활용되고 있음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4-라-1

##### (2) 중도 탈락률

- 산출식 : 중도 탈락 학생수 ÷ 재적학생 수
- 대학 입학 후 졸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도 탈락률은 대학 운영의 바로미터로 학생에 대한 투자가 줄고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계속 상승될 수 있으며 특히 상위 대학의 편입으로 중도 탈락이 늘어나는 추세임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4-사

(3) 교원 확보율

- 산출식 : 전임 교원수 ÷ 교원법정정원(재학생 기준)
  - ※ 전임교원 외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포함
- 여러 대학평가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주도내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게 가장 중요한데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교원 확보율임. 예전에는 전임교원확보율로 전임교원만을 측정했지만 현재 추세가 융·복합 학문 등 급변하는 학문에 신축성 있는 대응을 위해 전임교원 외 겸임교원과 초빙교원까지 포함함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6-라

(4) 직원 1인당 재학생 수

- 산출식 : 재학생수 ÷ 직원 수 (낮을수록 유리한 지표)
  - ※ 정규직 + 계약직 직원
-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져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적의 직원 수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14-사

(5) 정원 조정률

- 산출식 : 대학 자율지표 선정
- 대학 정원 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지표로서 각 대학의 환경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4-마(재적학생현황)

○ Conversion process 지표

(1) 장학금 환원율

- 산출식 : 장학금 총액 ÷ 수강료를 제외한 등록금 총액
  - ※ 등록금 총액이란 교비회계 등록금 수입 총액으로 평생교육원 등 수료과정 단기수강료 수입은 제외

- 여러 대학평가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표를 통해서 대학교 운영비보다 학생에게 얼마나 많은 복지를 잘 해주는가 확인하는 지표임. 평가 최소기본요건 기준값은 10%이나 환원율이 높은 대학은 50%를 넘는 대학이 있으며 보통은 20% 내외임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8

(2) 등록금 의존율 (낮을수록 유리한 지표)

- 산출식 : 수강료를 제외한 등록금 총액 ÷ 교비자금 규모
- 국내외 어려운 경기여건과 함께 등록금 인상률이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포물리지표로 연계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정부의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제주의 대학교들도 자체적으로 등록금 이외 다양한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 확보로 등록금 의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가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함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8

(3)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 실적

- 산출식 : 국내 논문 실적 ÷ 전임교원 수
- 국내 논문실적 비중 미비로 여러 대학평가 사업의 지표에서 삭제되고 있는 추세이며 제주도내 대학교 교원들의 실적도 매우 적으나 대학본연의 연구하는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 관리 차원에서 지표를 설정함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7-가

(4) 교비자금 중 법인전입금 비율

- 산출식 : 법인전입금 ÷ 교비자금규모
- ※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법인의 운영경비 부담을 확인하고 사립대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지표 근거 : 대학 정보공시 8

(5) 특성화 지수

- 산출식 : 대학 자율 지표 선정
- 제주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 각 대학의 강점분야의 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지표 근거 : 자체 설정

○ Output 지표

(1) 취업률

- 산출식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건강보험 DB 취업자 + 해외취업자 + 영농업 종사자 + 국세DB
- 대학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지표로서 현재는 건강보험DB 연계로 정확한 수치 산출이 가능함. 기존 대학평가지 취업률은 인문, 예체능계나 의학계는 제외하지만 도내 평가에서는 타 학교와 비교가 목적이 아니라 자체 목표 대비 성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학과의 취업률로 판단함
- 지표 근거 : 대학공시 5-다

(2) 유지 취업률

- 산출식 : 6개월 전 취업자의 유지 취업률  
※ 건강보험 DB 취업자 발표 연 2회
- 대학들이 졸업생들을 단기간 취업시켜 놓고 이를 취업률에 반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표로서 유지 취업률이 높을수록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다는 뜻으로 타 대학평가에서는 취업률에 포함시켜 20%가중치로 측정되어 유지 취업률이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도내 평가시는 따로 측정하여 양질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표 근거 : 대학공시 5-다

(3) 전년대비 취업 증가율

- 산출식 : (올해 취업률 - 전년 취업률) ÷ 전년 취업률
- 모든 지표가 목표대비 성취율을 보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목표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률의 경우는 따로 전년대비 취업 증가율 제시로 해마다 취업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측정 및 평가
- 지표 근거 : 대학공시 5-다

(4) 취업자 평균 임금수준

- 산출식 : 1년 평균 연봉 ÷ 취업자
  - ※ 제주도내 취업자에 한해 조사
- 건강보험 DB를 통해 제시되는 취업률은 양적인 지표만을 나타내 취업자의 질적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음. 대학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자료 제출 후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근거 확인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대학 취업자의 질적 취업을 유도해 나감
- 지표 근거 : 대학별 자체 조사

4) 평가 절차

- 각 대학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목표 설정 및 조정절차를 거쳐서 사업평가 결과 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한다.

〈표 26〉 2안 제주 사립대학 평가 추진 절차

No	수행 절차	시기
1단계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	4월
2단계	목표 수정 및 최종 제출	5월
3단계	평가자료 제출	10월
4단계	사업결과 평가	11월
5단계	결과 통보	11월

※ 상기 일정은 조정 가능

○ 각 단계별 세부 내용

- (1) 1단계 : 총 14개의 평가지표를 각 대학별 목표 및 역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목표 설정
- (2) 2단계 : 낮은 목표가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막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목표치 협의를 통한 목표 수정
- (3) 3단계 : 해당 평가지표별 근거 제시를 통한 사업계획 목표에 대한 결과 제시
- (4) 4단계 : 대학별 평가결과 설명회 및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현장실사 수행
- (5) 5단계 : 결과를 통한 대학별 인센티브 지원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5) 평가위원회 조직

- 외부 평가 위원 또는 컨설팅 조직을 두기보다는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자체 평가 위원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며 대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계속된 이해와 일관된 인식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내 교육 담당 공무원이 타당하다

## 6) 평가지표 제출 방안

- 제출 양식
- 각 지표별 양식을 목표, 근거, 전년도 수치 등이 기록된 양식으로 만들어 제출한다.

〈그림 6〉 평가지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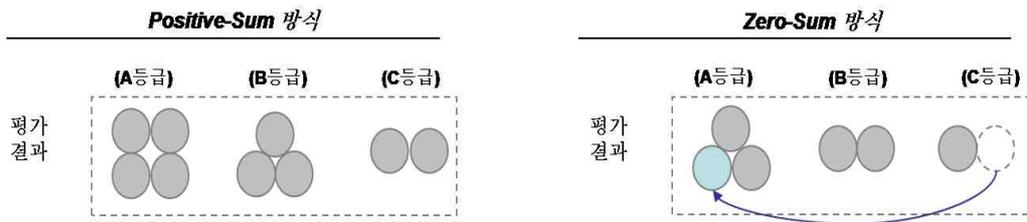
PART 1 : 기본 정의				
영역		해당부서		
지표명		담당자		
가중치		부 담당		
지표 설명				
PART 2 : 해당 상세정의				
지표 산식				
지표 구성요소 세부정의				
평가자료 근거(대학공시)				
PART 3 : 목표 정의				
목표				
목표설정 근거	비교 데이터			목표설정 근거 설명
	Y-3실적	Y-2실적	Y-1실적	
대학평균 수치			유사 대학 수치	

## 7) 인센티브 지급방안

### ○ 인센티브 배부 기준

- 인센티브 배부기준에는 positive-sum방식과 zero-sum방식으로 두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 positive-sum방식 : 평가지표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 수령시 적은 %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구성방식으로 인센티브 운영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준다. 인센티브 총액의 상승을 전제로 하여 고성과를 나타낸 조직을 장려한다.
  - zero-sum방식 : 재원의 한정으로 어느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도록 pay-matrix를 구성하여 인센티브의 제한을 두어 저성과자의 몫 중 일부를 고성과자에게 지급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그림 7〉 인센티브 배부기준



- 이번 평가에서는 zero-sum 방식을 도입하여 한정된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하며 3개 대학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 대학별 지원금 결정

- 3개 평가 대학의 규모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지원금도 대학 규모에 맞게 지원되어야 함

- (재학생 수 기준) 지원

예산 배부 기준을 평가년도 현재 각 대학의 재학생수로 반영

· 예) A 학교 지원 예산

$$= \text{총 예산} \times (\text{A 학교 재학생 수} / \text{3개 대학 재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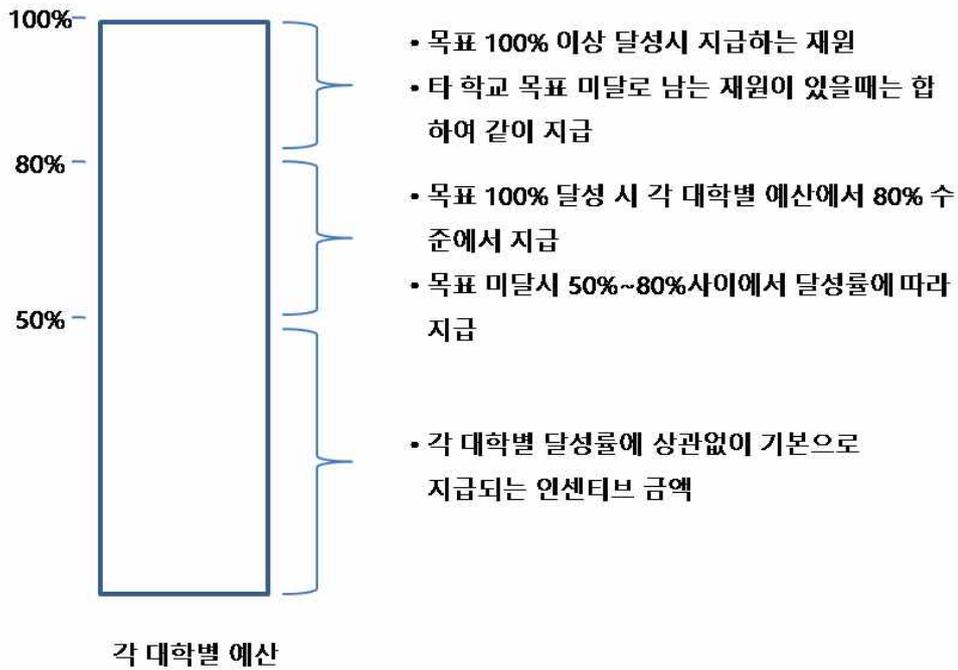
○ 인센티브 규모

-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달성수준을 고려하여 100% 달성시 각 대학별 지원금액의 80% 수준에서 지원함

- 초과 달성시 잔여 20% 재원과 100% 미달시 지원되지 않은 재원을 초과 달성 대학에 지급

- 3개 대학 모두 100% 미달시 기본 지급재원의 50% 인센티브 외 나머지 인센티브 재원은 대학발전전략 컨설팅 비용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교육에 지원

〈그림 7〉 각 대학별 인센티브 예산분포



〈표 27〉 인센티브 상황별 지급 예시

각 대학별 예산은 100만원 가정	A대학		B 대학		C 대학	
	달성률	인센티브	달성률	인센티브	달성률	인센티브
부분 초과달성	120%	156만원	100%	80만원	80%	64만원
전체 미달성	49%	50만원	80%	64만원	90%	72만원
전체 초과달성	110%	100만원	105%	100만원	130%	100만원
전체 달성	120%	110만원	100%	80만원	110%	110만원

○ 인센티브 계산

(1) 부분 초과달성

- A대학 : 초과달성이므로 A대학 재원(100만원)의 100% 지급과 미 달성 대학의 재원(B대학-20만원, C대학-36만원)을 함께 지급

- B대학 : 100% 달성이므로 B대학 재원(100만원)의 80% 지급
- C대학 : 80% 달성이므로 C대학 재원(100만원)의 80% 지급부분의 80% 지급 (80만원 X 80%)

(2) 전체 미달성

- A대학 : 49% 달성으로 기본 지급 인센티브인 A대학 재원(100만원)의 50% 지급
- B대학 : 80% 달성이므로 B대학 재원(100만원)의 80% 지급부분의 80% 지급 (80만원 X 80%)
- C대학 : 90% 달성이므로 C대학 재원(100만원)의 80% 지급부분의 90% 지급 (80만원 X 90%)
- 나머지 미 지급 인센티브 금액 (A대학-50만원, B대학-36만원, C대학-28만원)은 대학발전전략 컨설팅 비용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교육에 지원

(3) 전체 초과달성

- A대학 : 110% 초과달성이므로 A대학 전체 재원(100만원)의 100% 지급
- B대학 : 105% 초과달성이므로 B대학 전체 재원(100만원)의 100% 지급
- C대학 : 130% 초과달성이므로 C대학 전체 재원(100만원)의 100% 지급

(4) 전체 달성

- A대학 : 초과달성이므로 A대학 재원(100만원)의 100% 지급과 미 초과달성 대학의 재원(B대학-20만원)을 C대학과 예산규모를 고려하여(재학생 수 기준) 나누어 가짐.  
예시에서는 재학생수가 각 학교별 동일하다는 기준하에 동일하게 추가 10만원을 A학교에 지급
- B대학 : 100% 달성이므로 B대학 재원(100만원)의 80% 지급
- C대학 : A대학 계산과 동일

## IV. 제 언

- 1안)은 교육부의 대학평가 4대 지표 중 핵심지표인 취업률을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도내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2안)은 대학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도내 사립대학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시행하고, 2)안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 상호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로 구조조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김외숙 외(2006), 진보와 대화하기. 도서출판 산지니, 144.

김재현(2005), 대학 구조조정과 발전방안, 포럼글로벌.

이무근 외(2003), 대학설립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이영(2010), 대학구조조정 필요성과 방안, 대학교육 제164호 3-4호.

임연기 외(1999), 한국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임연기(2005),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쟁점, 교육행정학연구.

## 연구진

---

연구책임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강철상	승실대 교육대학원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양영숙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현안연구 2014-03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기준

---

발행인 || 공영민

발행일 || 2014년 8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http://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

ISBN : 978-89-6010-377-1 9332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